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2. Creation days 1-3”

Scripture: Genesis 1:3-13

Date preached: January 11th 2026

<p>Scripture: Genesis 1:3-13</p> <p>3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it was good</i>;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p> <p>6 Then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Thus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i>were</i>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i>were</i>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p> <p>9 Then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s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i>land</i> appear”;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y <i>land</i>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it was good</i>.</p> <p>11 Then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herb <i>that</i> yields seed, <i>and</i> the fruit tree <i>that</i> yields fruit according to its kind, whose seed <i>is</i> in itself, on the earth”; and it was so. 12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the herb <i>that</i> yields seed according to its kind, and the tree <i>that</i> yields fruit, whose seed <i>is</i> in itself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it was good</i>. 13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third day.</p> <p>3 하나님이 이르사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 5 하나님이 빛을 □□□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p> <p>6 하나님이 이르사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과 궁창 위의 물로 □□□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p> <p>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p> <p>9 하나님이 이르사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p> <p>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p> <p>11 하나님이 이르사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 □□ 하시니 그대로 되어</p> <p>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 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p>
--

Review – Genesis 1:1-2

Today we are going to look in some detail at the first three days of the creation week. However before we do that let us briefly review some of the key points from last week.

I spent some time outlining why the Book of Genesis is so important for us as believers. It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all we believe is built. Simply put what we believe about the Book of Genesis really matters.

This is why it has so frequently been challenged by critics and sceptics over the years. If they can make you question or doubt what this book really teaches they believe they can undermine your Christian foundations. After all If you begin to doubt the veracity of Genesis which part of the bible will you begin to doubt next?

As a thought experiment let's imagine that God had not given us the Book of Genesis. Just think about the information we'd be missing.

- We wouldn't know where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came from.

- We wouldn't know why we are different to the animals.
- We wouldn't know why we are special.
- We would have no explanation for why wicked and evil things happen.
- We wouldn't know about God's rules for marriage.
- We wouldn't know why there are so many languages and people groups in this world.
- We wouldn't know that our sin separates us from our creator.

That lack of understanding would represent a catastrophic degree of ignorance. Fortunately God does not leave us puzzling over these things. He provided us with the book of beginnings or the book of origins. It furnishes us with the answers to these fundamental questions. This is why we are taking the time in this study to carefully study and examine all that God reveals.

Last week I provided you with a brief background to the Book of Genesis. We used the 5 “W” questions to help framework our investigation. Let's quickly recap now.

복습- 창세기 1:1-2

오늘은 창조 주간의 첫 시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믿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비평가들과 회의론자들이 창세기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적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 또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시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 우리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왜 우리가 동물과 다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왜 특별한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왜 악하고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규칙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들이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부재는 재앙적인 수준의 무지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른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창세기, 즉 기원의 책 the book of origins 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5W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Genesis?

The Book of Genesis is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time beginning at the creation of the physical (natural) world and ending approximately 2,200 years later with the death of Joseph. The contents can be broken down into two large sections. The first section often termed, “Primeval History” (chapters 1–11) covers the creation event, Adam and Eve, Cain and Abel, the flood of Noah and the tower of Babel. The second large section is known as the “Patriarchal History” (chapters 12–50). It tells us how God shifted His focus from humanity in general to one man and his descendants in particular. That man was Abram later to be known as Abraham. God's plan was to work through him

and the generations that would follow him.

창세기는 물리적(자연적) 세계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약 2,200 년 후 요셉의 죽음까지의 시대를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 □□□□□□ □□□□□□ . 첫 번째 부분은 흔히 "원시 역사"(1~11 장)라고 불리며, 창조 사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족장 역사"(12~50 장)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로 관심을 돌리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훗날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Who wrote Genesis?

The Book of Genesis does not record the name of its author. The tradition from the earliest of times is that this book along with the four that follow it in our bibles were written by Moses. Jewish tradition has attested to Moses' authorship of Genesis for nearly 3,500 years, starting with his successor, Joshua. Although Mosaic authorship has been challenged in recent centuries no convincing reason has ever been provided that should cause us to abandon the idea that Moses is the author. The Lord Jesus affirmed Moses as being the author and that should suffice.

창세기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창세기와 그 뒤에 나오는 네 권의 성경은 모세가 썼다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 전통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약 3,500 년 동안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사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에 이의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세를 저자로 인정하셨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When was Genesis written?

Most conservative scholars think that the Book of Genesis was written whilst the Israelites were wandering through the wilderness following the exodus from Egypt. This means we can date the writing to sometime between 1446 and 1406 BC.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후 광야를 방황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기록 시기는 기원전 1446 년에서 1406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Where was Genesis written?

It is impossible to give a definitive answer to where Moses was when he wrote. The best we can say is that it was written somewhere in the wilderness.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이 광야 어딘가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Why was Genesis written?

Moses wrote to provide God's people with an accurate account of where they came from and what God had done in the past. Given their anxiety at this particular time it would have greatly encouraged them. They could know that they were special and that God had always helped them. If He had loved and helped them in the past He would continue to do so in the present and future.

We, too, need an accurate account of where we came from an explanation for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Genesis provides us with this necessary information.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기원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 글은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셨다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After covering this background we then went on to look at the first two verses of Genesis. God's revelation to us begins by making two enormous claims. It claims there was a beginning and in that beginning God acted. The bible wastes no time trying to explain who or what God is. It simply assumes His existence.

In verse two we are told about the state of things as God began the work of creation. The earth we are told was without form and void.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ver what is meant here. Is there a gap between the events of verse 1 and 2? Did God create perfect world and then have to recreate it again after it was destroyed? Nothing in scripture suggests this. As I said last week I think it is best to picture the world as being like a lump of clay ready for the creator to begin His work of shaping and forming.

We are going to look at that work now as we consider the first three days of the creation week.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창세기 1 장과 2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2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당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1 절과 2 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후,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하셔야 했던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 절에서의 세상을 창조주께서 빛과 다듬으실 진흙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창조 주간의 첫 삼 일을 살펴보면서 창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We begin now with day one of creation. As we shall see as we go through the creation narrative a recurring pattern of division or separation is followed throughout the creation week. God separates one thing from another and declares it to be good. We will also see that He forms, and then fills the thing He has formed with something appropriate. Here on day one we witness a division of light from dark. God starts off by commanding there to be light. In the original Hebrew this is much more expressive than in English. It might literally be rendered as follows,

Become light! And became light!

This is a reference to natural light. This is not to be understood as meaning “spiritual light.” The assumption must be that prior to this moment “natural light” did not exist. Please note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all was in darkness prior to this time. The sun is not the only source of light in the universe. God Himself is light (see 1 John 1:5) and He wears light as a garment (Ps. 104:2; Hab. 3:3–4). We also know from scripture that the eternal city will enjoy endless light without the help of the sun or moon (Rev. 22:5). This helps explain how light could exist at this time given the fact that the sun, moon and stars will not be created until day four. So what exactly is this light?

This light was either a temporary light source He created or it came from God Himself. In modern scientific terms we might be referring to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photons. So some scholars propose the idea that the Holy Spirit energized the electromagnetic forces that were lying dormant at this time. Another view that some hold is that God created the sun at this time but that its light did not become visible until day four.

The alternative view is that the light was coming from God Himself. Hebrew scholar Arnold Fruchtenbaum makes the case that this is a reference to the *Shekinah glory* which appears in a number of places in the bible (see Exodus 13:20-22, 40:34).

However this light was created we now have the existence of light. Let us not overlook the significance of this moment. Can you imagine a world of only darkness? A world in which the sun's light does not shine.

Life as we know it cannot exist without the light of the sun. The equation is very simple. No sun no life. The Earth lies approximately 150 million kilometres from the Sun. This means that it takes roughly eight minutes and twenty seconds for light to travel that distance. If the sun were suddenly to blink out of existence we would be unaware of this catastrophe for this brief period of time. A cheery thought to dwell on if you ever feel excessively joyful. But on a far more uplifting note the bible frequently connects God with light. We often think of God's work of salvation in an individual as being brought out of the dark and into the light.

The Apostle Paul recognised in this initial creative act the work of God in the salvation of the lost. In his 2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he writes,

“For it is the God who commanded the light to shine out of darkness who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2 Cor. 4:6).

In our lost and sinful state we reside in the darkness. It is only when Go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lluminates the truth to us that we truly see the light. We then shun the darkness we once loved and step into the brilliant light of our saviour Jesus Christ.

Before we move on I also want you to carefully note how God initiates the process of creation. All that comes into existence does so through God's spoken command. God speaks and something happens. We will see this pattern repeated across all six creation days.

Let us read on and see what God does with this light.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조 주간 내내 분리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부터 분리하시고 그것이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적절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 구절에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분리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영어 번역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되라! 그러자 빛이 되었다! Become light! And became light!

이것은 자연적인 빛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자연적인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양만이 우주의 유일한 광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요한일서 1:5 참조), 빛을 옷처럼 입으십니다(사편 104:2; 하박국 3:3-4). 또한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도시는 하나 달이 없어도 끝없는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2:5). 이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되는데 첫째 날에 어떻게 빛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시적인 광원이거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빛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용어로 전자기 광선 electromagnetic radiation 과 광자 photons 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께서 잠자고 있던 전자기력을 활성화시키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그 때 해를 창조하셨지만 그 빛이 넷째 날이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견해는 그 빛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학자 아놀드 프루흐텐바움은 이것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쉬키나 영광 Shekinah glory* 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출애굽기 13:20-22, 40:34 참조).

이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든 간에, 이제 빛이 존재합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통 어둠뿐인 세
 □□□□□□□□□□ . 태양 빛이 비추지 않는 세상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태양 빛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지
 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 억 5 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빛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8 분 20 초가 걸립니다. 만
 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재앙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극도로 기쁠 때조차도 꽤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격려가 되는 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빛을 자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창조 행위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 (고린도후서 4:6)**

우리는 죄에 물들어 어둠 속에 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어둠을 버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안으로 나아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
 님의 말씀 명령을 통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패턴은 창조의 6 일 전체에 걸
 쳐 반복됩니다.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was pleased with His work. The light that now shone was good. The Hebrew word used here
 for “good” is the word *tob* (*tobe*). It means a little more than simply that the light was aesthetically
 nice or pleasing to witness. It carries the idea of the light being in line with God's purpose and
 design. It was we might say in harmony with what God wanted. God remember was creating a
 perfect world in which His creation would flourish and thrive. The light therefore was in-keeping
 with His plan.

God then we read divided or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The two would continue to exist
 in the world separately from each other. Light is always the dominant force. This is because when
 light appears, darkness will always disappear. The reverse is never true. Darkness has no defence
 against light, since "darkness" does not really exist, in and of itself. It is simply the absence of light.

I remember many years ago going pot-holing in the north of England. I went with a group of
 college friends. The experienced pot-holing guide gave us helmets with a headlamp fitted to the
 front. He led us about a 100 metres down the main tunnel to where there was a spacious cave. When
 we had gathered in a circle he told us all to turn off our lamps. We were plunged into impenetrable
 inky darkness. It was both exhilarating but also a little scary. I learnt through that experience what
 “real” darkness looks like.

Let us continue.

4 빛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사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에 만족하셨습니다. 밝게 비추는 빛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좋다 good"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tobe)*입니다. 이는 단순히 빛이 아름답거나 보기에 좋다는 뜻 이상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
 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반성하고
 변영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분리되어 세상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빛은 언제

나 우세한 힘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항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그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오래 전 영국 북부에서 동굴 탐험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경험 많은 동굴 탐험 가이드가 앞쪽에 헤드램프가 달린 헬멧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메인 터널을 따라 약 100 미터 정도 안내했고, 그곳에는 넓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며 모이자 그는 우리 모두에게 램프를 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졌습니다. 짜릿하기도 했지만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짜"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5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As the supreme creator it is God's right or prerogative to name His creation. As we shall see later in creation He delegates the responsibility of naming the animals to Adam (Gen 2:19-20). In ancient cultures it was seen as a sign of authority to be able to name a person, place or thing. This right did not belong to just anyone. It was the king or rulers right as the sovereign to name things.

God here calls the light "day" and the dark He calls "night." We also read here of there being an evening and a morning. This indicates that the earth was now rotating on its axis. We are the seeing the beginning of an earth day in which we experience a period of light (day) followed by a period of dark (night). The Jews reckoned the beginning of a day to be the evening. Their day began with the setting of the sun. We don't in the West think of the day in this way. We count the beginning of the day to be the rising of the sun. So probably what Moses meant here is that "the evening" refers to the beginning of Gods work on this day and morning meant the ending of God's work. So God spent "a day" working. And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the first day of creation.

Before moving on to day two I need to speak a little about the word "day." In English, we use the word "day" in variety of ways.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I spent the *day* on the beach."

We mean by this that we spent some part of the daylight hours on the beach. We probably don't mean that we spent 24 hours on the beach!

"I plan to visit Hong Kong some *day*"

We mean by this that we will plan to spend some time, but not literally a day in Hong Kong at some unspecified point in the future.

"In my grandfathers *day* men got married when they were young."

When we use "day" here we are referring to an era or longer period of time in which our grandfather lived.

In Hebrew the word for day (*yom*) appears more than two thousand times in the Old Testament. Just like with English it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Within the context of the first two chapters of Genesis we find the word "day" used in three different ways.

- (1) To refer to a solar day (1:14)
- (2) To refer to the daylight portion of the day as opposed to night (1:5,14,16)
- (3) To refer to the entire creative period (2:4)

So some have leapt upon this opportunity to suggest that the days of creation are not literal 24 hour periods. They are in fact much longer periods of time, aeons or ages (millions or even billions of years). This idea is known as the "Day age theory." It is rooted in an attempt to harmonize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with what "appears" to be overwhelming scientific evidence of an "old"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빛(☀)과 어둠(밤)의 주기로 이루어진 지구의 하루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와 달리 해가 뜨는 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저녁”은 그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아침”은 그 일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일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창조 첫째 날이 끝납니다.

둘째 날로 넘어가기 전에 “날 day”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day”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spent the *day* on the beach.”

이 말은 낮 시간 중 일부를 해변에서 보냈다는 뜻이지, 24 시간 내내 해변에서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I plan to visit Hong Kong some *day*.”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미래에 언젠가 홍콩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In my grandfathers *day* men went married when they were young.”

여기서 “day”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또는 오랜 기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יום day'(욘 Yom)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2 천 번 이상 나옵니다. 영어에서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 장과 2 장에서 'יום day'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 (1) 하루를 가리킬 때 (1:14)
- (2) 밤과 대비되는 낮 시간을 가리킬 때 (1:5, 14, 16)
- (3) 창조 기간 전체를 가리킬 때 (2:4)

여기서 어떤 이들은 창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 24 시간이 아니라 훨씬 긴 기간, 즉 수 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걸친 시대(eon)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Day age theory'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오래된 old' 지구에 대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 특히 지질학적 자료에 맞추어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과학이 옳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에 성경 내용을 짜맞추기 위해 왜곡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어로 "יום day"을 뜻하는 단어 yom 은 항상 24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창세기 1:5 - 2:2 절까지의 맥락에서 "yom"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2,301 번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1 장을 제외하고 숫자와 함께 사용된 "yom" (성경에 410 번 나옴)은 거의 항상 일반적인 24 시간을 의미합니다. Dr. 테리 모턴슨에 따르면

구약성경에서 "יום day" (יום, yom)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yom 이 "저녁 evening"이나 "아침 morning"과 함께 나오거나 숫자로 수식될 때 여섯째 "sixth day" 또는 "5 일 five days"), 그 단어 yom 는 항상 24 시간을 의미한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가 함께 □□□ 때의 대부분 보통의 하루를 나타냅니다(성경에서 38 번 □□□). "저녁"과 "아침", 그리고 "yom"이 모두 함께 쓰인 구문은 창세기 1 장 외에는 오직 다니엘 8 장 26 절에서만 나오는데,

이는 분명히 긴 기간을 뜻합니다.

**"저녁과 아침에 대한 환상은
참된 것이니
그러므로 그 환상을 봉인하라
이는 장벽의 많은 □□□□ 가리키는 것이니라"**

이 모든 설명은 모세가 창조의 맥락에서 각각의 날 day 을 문자 그대로의 24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몇몇 예외(오거스틴)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왜 6 일이라는 시간을 쓰셨는지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확하게 6 일이라는 시간 틀 안에서 창조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6 분 안에 또는 한 시간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6 일 동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 day 이라는 시간이 문자 그대로 24 시간임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를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 장에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옛새 동안은 일하고 네 모든 일을 하라 10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나 네 이대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11 이는 여호와께서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8-11)

여기서 모세는 창조 □□□□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패턴은 옛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문자 그대로 24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해석은 순전히 터무니 없는 결과를 □□□□. 한번 □□□ 보십시오. 60 억 년 동안 일하고 나서 10 억 년 동안 쉬어라!

6 Then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Thus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We move now onto day number two of creation week. The first thing that God does is create a firmament. Literally an “expanse” or “extended surface” to divide the waters.

So what we are seeing here is a separation of the water that is to remain on the earth from the water that is to be taken up into the “sky” or atmosphere.

The water that remains on earth will later be formed into seas, lakes and rivers. There is also water of course beneath the earth's surface.

The water taken up into the sky is going to be formed into what has been referred to as a water canopy or “vapour blanket.” Some have even suggested that it was a layer of liquid water or even an ice canopy that encircled the earth. Dr Henry Morris rejects these ideas because they would render the people on earth unable to see the stars. He favours instead an invisible layer of water vapour. This may have been positioned above the troposphere and possibly even above the stratosphere. However given the paucity of information in scripture I don't think we can be absolutely dogmatic on what is being described here.

If such a vapour blanket is in view it would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upon the ecology of the earth. Dr Morris suggests that this blanket would have had a number of positive effects upon the earth. It would have acted like a global greenhouse, maintaining an essentially uniform, tropical temperature across the globe. Without great temperature variations,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바다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The second day concludes with God again stamping His authority upon the creation by naming the firmament “heaven.” This is the Hebrew word *shamayin*. It can be translated as “air,” “sky,” or “heaven.” It's unlikely that the word “heaven” here is referring to the dwelling place of God. This “heaven” is very likely “the heavens,” or the atmosphere, literally the “empty” space above the sea. This naming event brings the second literal period of 24-hours to a close.

Just a word in passing about why God doesn't refer to His work on this day as being “good.” On every other day of creation He declares what He has created to be good. So why not on the second day? The reason appears to be that the separation of the waters is a two-fold process. First, as we have seen we have the division of the waters above from the waters below. And secondly, as we shall shortly see the division of the waters from the land. So the work on the second day is incomplete and therefore God does not declare it good.

He will make up for this by pronouncing it good twice on day three!

Let us move on then to the third day of creation.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둘째 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권위자로서 이름을 붙이는데, 궁창을 “하늘heaven”이라 부르시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히브리어 단어 *shamayin*은 “공기air”, “하늘sky 또는 heaven”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heaven”이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늘”은 아마도 “하늘들heavens” 또는 대기atmosphere, 즉 문자 그대로 바다 위의 “빈” 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지음으로써 두 번째 24 시간이 끝납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다른 모든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이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둘째 날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물이 나누지는 과정이 두 가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둘째 날에 물이 위와 아래로 분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곧 살펴볼 것지만 물로 부터 땅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작업은 아직 미완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두 번이나 좋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를 만회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 Then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s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We are now beginning the third day of creation. God is continuing His work of refining the creation by adding detail. The first thing God does is gather the waters together into one place. To continue on with the motif of separation we could say He divided the land from the water. A surface reading of this verse might suggest that at this time there was just one giant sea and one giant land mass. This is what some believe. I don't think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interpret the text in this way. What it may mean is that the various large bodies of water (seas, lakes and rivers) were gathered together. We see evidence for this in God naming the waters seas (plural) and not sea (singular).

However, with that being said when one looks at a map of the world today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all the “oceans” are actually joined together. They are indeed one large mass of water.

Once this division has been completed we see God again naming His creation. The land He called “earth” (*erets*). The waters He called “seas” (*yam*). When this was complete God declared that it was good. The “good” here means that it was pleasing to God. It was a suitable, indeed a beautiful place in which to now create the living parts of His creation.

Let us read on and see the next stage of creation.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 Seas 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셋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시며 창조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가장 먼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분리라는 주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부터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거대한 바다와 하나의 거대한 육지만 존재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 □ □□(바다, 호수, 강)이 한데 모였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Sea'(단수)가 아닌 '바다들 Seas'(복수)이라고 부르신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 모든 '대양들 oceans'이 실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거대한 양의 물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자신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물은 '땅land'(*erets*)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seas”(*yam*)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good”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울 생명체들을 창조하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다음 창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1 Then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herb that yields seed, and the fruit tree that yields fruit according to its kind, whose seed is in itself, on the earth”; and it was so.

God's work on the third day of cre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as we have seen was the separation of the land and the seas. Now, with that task complete He turns to the creation of land plants, trees and possibly vegetation in general. Day three then represents the beginning of biology.

Please note that the plants and trees are created fully grown, developed or mature. As we know trees and plants grow and develop initially from seeds. In many cases, particularly with trees this is a very long process. Oak trees for example can take anywhere from between 10 to 50 years to reach maturity and produce acorns (seeds) of their own. God however skips this process during the creation week and creates fully mature plants and trees. They will later reproduce in the usual way from seeds. The reason for this should be obvious. The living creatures that will soon be created will need something to eat, and a place to call home. They would starve to death if they had to wait weeks or months for plants to grow.

This means that the initial creation had the appearance of age, or to be more accurate the appearance of maturity. Adam was not created as an infant and the trees presumably had age rings inside them.

Some have claimed that this makes God a deceiver. He deceived us by giving things the appearance of being old in age when they were in fact newly created. Such an idea of course is false. God cannot lie or deceive (Num 23:19). Those who think that God is “tricking” is with the creation are making the wrong assumptions. Age after all is an inference based on assumptions.

If you are asked how old someone looks how would you make your assessment? You'd assess the person based on their appearance. How old do they appear to be? Do they have grey hair and

wrinkles? Are they bent over and slow moving? You might assume given the way they appear that a person is very old. However your estimates may be wildly inaccurate based on faulty assumptions. The person may have dyed their hair, they may be sick or diseased and this may have aged them, or they may be wearing a disguise or make-up that makes them look older.

God created with maturity. There was no deception about the age of things. He told us plainly when He created and therefore did not intend to deceive us in any way.

We should also note that Moses mentions "seed" and "kind" referring to the ability of vegetation to reproduce itself and not some other type. This phrase "according to its kind," will be repeated nine more times in Genesis chapter one after this first occurrence. The word "kind" is the Hebrew word *min*. Most scholars think it is not to be understood in quite the same way as we today think of species. However it does clearly reinforce the idea that living things produce things that resemble themselves. Oak trees produce acorns that grow into oak tree. Certainly it is true that we might see variations within each kind, but we never witness new kinds emerging. We never see oak trees producing acorns that grow into plum trees.

What this means is that macroevolution is not a part of God's design. God never designed one kind of thing to change over time into an entirely different kind of thing. This is of course what Evolution claims. It maintains that all living things can trace their origin back to a single common ancestor. Please note carefully the distinction between "macro" and "micro" evolution. Microevolution, which we as believers can fully accept says that small variations are possible within a kind. So birds of the same kind might have slightly different shaped beaks depending on what they eat. Macroevolution, which we as believers deny says that over time a fish can become a cow.

The verse ends by telling us it was so. There are no ifs, buts or maybes with God. When He speaks things come to pass.

Let us conclude our study by looking at how the third day closes.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 □□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하나님은 땅에 식물, 나무, 그리고 일반적인 초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때 식물과 나무는 완전히 자라서 이미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무와 식물은 처음에 씨앗에서 싹이 트고 성장합니다. 특히 나무의 경우,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참나무는 성숙하여 도토리(씨앗)를 맺기까지 10 년에서 50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기간 동안 이 발달 과정을 건너뛰고 완전히 성숙한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 이후에는 보통의 방식대로 씨앗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곧 창조될 생물들이 먹을 것과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식물이 자랄 때까지 몇 주,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했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는 최초 창조물들이 나이 든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갓난아기로 창조되지 않았고, 나무들에는 나이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이 기만자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새로 창조된 것들을 나이들어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민수기 23:19).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는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들어 보이는가? 흰머리와 주름이 있는가? 허리가 굽고 움직임이 느린가? 외모만 보고 매우 늙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여 매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염색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늙어 보일 수도 있고, 변장이나 화장을 해서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파조물의 나이에 대한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However there is still much to appreciate and admire. Let us then value and enjoy what God has given us and treat it with due reverence and respect.

4 창조물의 선함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셋째 날에 행하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의 창조물이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본질적으로 선함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줌을 깨닫게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처럼 "선하고"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경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며, 합당한 경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합니다.